

“해금 넘어 크로스오버 길 걸어요”

광주출신 해금 연주자 김단비 씨 재즈 테마로 경계 없는 음악 시도 5일 ACC 카즈미 타테이시 공연 협연 서울·제주 등 전국 10개 도시 투어



광주 출신 해금연주자 김단비(왼쪽부터)와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 스키지 마오(드럼), 타테이시 카즈미(피아노), 사토 시노부(첼로).

전통악기는 고루하다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지만, 다양한 장르와 크로스오버를 시도하는 연주자들이 있다. 젊은 해금 연주자 김단비(여·32)도 그 중 한 명.

그의 연주를 듣고 싶다면 지브리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에 등장하는 토토로의 표근한 풀속갈기도, '벼랑 위의 포뇨'에서 쏟아지던 수천 마리 물고기들의 역동적 몸짓 갈기도 하다. 하나의 악기가 자아내는 멜로디지만, 스펙트럼이 넓은 탓에 가지각색의 애니메이션 OST를 듣는 느낌이다.

광주 출신 해금연주자 김단비가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와 협연을 한다. 오는 5일 오후 5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열리는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 내한 공연-지브리 재즈를 만나다 광주'이다.

공연은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지브리 애니메이션 OST를 재즈 버전으로 편곡해 선보인다.

"타테이시 트리오와는 지난 달 발매한 앨범 'La fiesta' 공동 작업을 하면서 많이 소통하게 됐어요. 언어적 차이는 있지만 '음악'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어 장벽을 초월해 공연을 준비할 수 있었죠."

광주예고 국악과, 전남대 음악교육과를 졸업한 김단비는 지난 달 3집 앨범을 발표했다. 앨범 수록곡 전반에 '재즈'라는 테마가 관통하고 있는데, 곡을 제작하며 타테이시 트리오와 작업했던 경험이 이번 공연으로 이어진 것.

그동안 김단비는 국악콘텐츠 나래이 선보이고 있는 기획공연 '이방인' 등에서 장르 간 융합을 모색하는 '크로스오버'에 천착해 왔다. "우리 악기 해금은 어느 장르에도 잘 융화되는 '순백의 한지' 같아서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생각을 들 수 있었다. 또한 "개성 있는 음색이 공존하는 까닭에 재즈 특유의 무드를 표현하는데도 해금이 적격"이었다는 것이다.

이번 재즈 레퍼토리를 비롯해 대부분 클래식은 서양 오케스트레이션의 지휘법, 주법, 선법, 기악 편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예민'한 잘현악기 해금과 서양 악기들이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었는지 궁금한 대목이다.

"물론 동·서양 악기의 차이를 비롯해 일본 피아노 트리오와 언어·문화적 차이도 있었어요. 그래도 트리오가 많이 배려해 주 수월하게 합을 맞출 수 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정확한 음계가 정해진 다른 관악기 등에 비해 해금은 음정도 자유롭고, 두 현만 조율하면 되니까 크로스오버하기에 좋은 악기이죠. 물론 연주자의 재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겠지만요."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의 '지브리' 주제곡을 재즈 버전으로 편곡, 일본 아마존 재즈 차트 1위에 오른 바 있는 발군의 팀이다. '돌아올 수 없는 날들 -Live in Korea 2013', '크리스마스, 재즈를 만나다' 앨범 수록곡 '서울의 12월' 등 곡에 대한 경험을 녹여낸 만큼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보여줬다.

이번 무대는 '이웃집 토토로', '인생의 회전목

마', '벼랑 위의 포뇨' 등 이름만 들어도 지브리 특유의 따뜻한 감성이 특징인 곡으로 채워진다. 마녀배달부 키키 '바다가 보이는 마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OST '생명의 이름', '언제나 몇 번이라도' 등이 울려 퍼진다. 대부분이 지브리 근작에 수록된 트랙들이지만, '천공의 성 라퓨타'나 '모노노케 히메' 등 고전 반열에 오른 오리지널 사운드도 감상할 수 있다.

이외 '산책', '너를 태우고', '세계의 약속' 등 다양한 레퍼토리가 마련된다. 당일 공개하는 스페셜 트랙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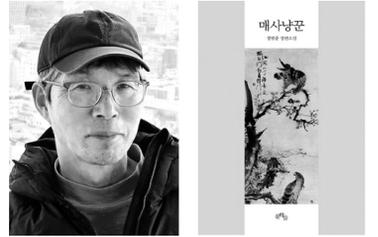
김단비는 "앞으로도 해금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고유의 매력을 배가시키는 '장르 간 융합 공연'을 꾸준히 시도할 것"이라며 "다양한 예술장르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언제나 음악적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내한 공연은 광주를 필두로 서울, 제주, 울산, 대구, 수원, 부산 등 전국 10여 개 도시에서 투어 형식으로 진행된다.

VIP석 7만7000원, R석 6만6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南北 텃밭’이 건네는 목직함 메시지

보성 출신 정범중 작가 장편 ‘매사냥꾼’ 발간



정범중 작가

"내 마음속에는, 어릴 적에 깃들여 지금까지 이어져 온 공간이 있다. 풍성한 텃밭이다. 작가에게 원형 공간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나는 풍성한 텃밭을 떠올렸다. 내가 어릴 적에 매일 보았던 텃밭은 할머니께서 가꾸셨다. 그곳에서 상추, 배추, 무, 고추, 갓, 가지, 아욱, 마늘, 썩갓 같은 채소가 자랐다. 상추는 씹으로, 배추와 무는 김치로, 썩갓은 무침으로 밥상을 풍요롭게 했다."

보성 출신 정범중 작가가 장편소설 '매사냥꾼'(문학동네)을 펴냈다.

그동안 소설과 동화, 희곡 등 장르를 넘나들며 다채로운 창작활동을 펼쳐온 정 작가는 이번 장편에서 남북의 텃밭을 모티브로 목직함 메시지를 전달한다.

'부정'을 긍정으로, '지배'를 사랑으로 전환시키는 이야기는 오늘날 팍팍한 남북관계를 떠올릴 때 의미있는 서사로 다가온다.

작가는 결코 고답적이거나 웅변조로 해결의 방향을 풀지 않는다. 만약 남북의 텃밭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고립된 군인이 타지에서 매사냥꾼이 된다면 어떻게 매를 길들일까? 라는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문다.

소설은 모두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텃밭'이며 2부는 '초원'이다. 전자는 1991년 사고로 북방한 계선을 넘게 된 한 군인의 이야기이며 후자는 그로부터 십수 년이 지난 후 몽골의 초원에서 한반도를 잇고 매와 더불어 살아가는 매사냥꾼의 이야기다.

작품에서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그보다는 남과 북에 있는 텃밭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내세운다. 아울러 오랜 세월 훈련된 매도 암수가 만나면 사냥꾼을 떠나간다는 내용

은 애뜻함과 동시에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즉 전체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는 '생명'이자 '어울림'이다.

정 박가는 "텃밭은 한반도 남쪽에도, 북쪽에도 있다. 대립이 격화되면 화해 분위기인, 남북의 텃밭은 변함없이 다양한 채소를 길러내 왔다"며 "사람들은 그걸 먹고 이웃과 나누었다. 이런 텃밭이 있는 한 남북은 내적으로 돌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설을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 남북의 텃밭을 얘기해 보고 싶었다"며 "세월이 흘렀으나 그 바람을 지켜서 남북의 텃밭이 등장하는 소설을 쓰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작가는 전남대 경영대를 졸업했으며 1986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희곡 '새연'이 당선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제주 4·3문학상(소설), 문학동네 어린이문학상, 광주시립극단 희곡상 등을 수상했으며 '칼과 학', '마스크 요정과 꼬마꽃별', '봄날의 새연'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간에 관한 이야기’로 인문학 산책

광주역사민속박물관, 9~30일 마한유적체험관서 강좌

'동양철학, 삶의 조우', '인간의 삶에 예술을 더하다', '시의 언어와 삶의 이야기',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이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인문학산책 강좌를 마련했다. 강의는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에서 펼쳐지며 철학과 예술, 문학 등 다채로운 분야를 아우른다.

부유진 학예연구사는 "이번 인문학산책은 왜 우리는 인문학을 어려워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며 "의학·철학·예술·문학 등 다채로운 분야를 인문학과 접목해 지성과 감성을 폭넓게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먼저 첫 번째 강좌는(11월 9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노화 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박상철 교수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강의의 포석을 다진다. '한국인 백세인 : 20년의 변화'로도 알려진 박 교수는 나이들을 위한 해법을 인문학적 성찰로 풀어낼 예정이다.

동양 철학의 사유의 힘이 우리 삶을 어떠한 방식

으로 지탱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시간도 있다. 11월 16일에는 재미있는 입담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항준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동양철학, 삶의 조우' 시민들을 만난다. 최근 '서(楚), 인간의 징검다리'에서 보여준 도덕적 상상력을 매개로 인간 공동체 원리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강단에는(11월 23일) 광주교육대 교육문화원장을 지낸 정희남 아트센터 대담 관장이 오른다. '바람을 그리는 작가'로도 익히 알려진 그의 화폭에는 자연 풍경을 매개로 한 굳건한 생(生)의 의지가 드리워져 있다. '인간의 삶에 예술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인간과 예술을 접목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마지막 강의(11월 30일)의 강사는 김수영문학상·대산문학상을 수상한 서효인 시인. '소년 파르티잔 행동 지침'의 저자이기도 한 시인은 이번 강연에서 '시의 언어와 삶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강의 참여는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해야 하며 수강생 정원은 100명, 참가비 무료.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단풍 빛깔처럼 화려한 '국악의 향연'

국립남도국악원, 11월 첫 토요일상설공연 4일 팡파르

"한로사풍(寒露沙風) 요란해도 제 절개를 굽히지 않는 황국단풍(黃菊丹楓)도 어찌현고?"(단가 '사철가' 중에서)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명현·남도국악원)이 11월 첫 토요일상설공연 '국악의 향연-절개를 굽히지 않는 황국단풍은 어떠한가'를 오는 4일 오후 3시 남도국악원 진악당에서 팡파르를 울린다.

공연은 판소리부터 무용, 기악까지 다양한 전통

예술 장르가 마련돼 있다.

먼저 기악합주 '도드리'가 울려 퍼진다. 기쁨 있고 아정(雅正)한 우리 정악의 한 갈래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버전으로 재창작됐다. 심 봉사가 맹인잔치에 참가하는 '심 봉사 황성 올라가는 대목', 잔치판 앞에서 방아를 찧는 '방아타령' 등 이채로운 심창가 대목들도 레퍼토리에 있다.

기아금병창 '청석령 지나갈 제', 치국안전과 무

사태평을 기원하는 '태평무'도 울려 퍼진다. '태평무'는 일제강점기에 명고수 한성준이 재구성했으며 1988년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됐다. 궁중의 왕과 왕비의 차림을 한 뒤 우아하게 걷는 안무는 고아한 우리 연희극의 멋을 대변한다. 이어지는 '박종선류 아쟁산조'는 두 대 아쟁으로 구슬프게 연주하는 중주곡으로, 여기에 남사당패와 예인들이 대접 등을 돌리는 '비나놀이'가 곁들여진다.

남도국악원 장악과 선난이는 "이번 공연은 가을이 깊어가는 11월에 국악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남도국악원은 12월까지 매주 다양한 국악 공연을 도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